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

정 상 수* · 방 세 현**

- I. 서론
- II. 경산지역 청동기 유적
- III.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비교·검토
- IV. 가시권분계·자원가용권과 인구에 대한 논의
- V. 결론

국문초록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이 있는 위치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식량·소금·땃감(나무)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1920년대 지형도에 마을을 표기한 후 이를 통해 마을에서 경작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추론하였다. 이는 마을유적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최대범위(가시권분계)와 당시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 접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범위(자원가용권)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금호강을 기준으로 남(중서권)과 북(북서권)에 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 (재)다운문화재연구원 원장 / jssmih@hanmail.net

**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sunji8487@naver.com

이 큰 마을은 천(川)으로 세부적인 마을이 구분되었으며, 이들 작은 마을 중에 집중적으로 무덤(고인돌)을 조성한 곳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북서권과 중서권이 하나의 큰 마을로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식묘는 마을의 랜드마크 또는 육로의 길목에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호강·남천·청통천 등의 물길이 물자 교류를 위한 중요한 교통로로 추정된다.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의 마을과는 관찰·감시·교류·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주제어

가시권분계, 자원가용권, 경산지역, 마을유적, 금호강·남천·청통천

I. 서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며 없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4가지가 소금(鹽), 물(水), 식량(食糧), 땃감¹⁾이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생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이는 산업화 이전은 물론이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석기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소금²⁾을 제외한 물, 식량, 나무³⁾를, 주변에서 얻어야 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필수요소들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대의 지도를 통해서 유추(類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마을의 범위, 거주자 그리고 계서(階序)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청동기시대 마을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범위⁴⁾를 가시권분계(可視圈分界)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 지점에서 보이는 경계부분, 즉 산혹은 구릉을 따라 이어지는 능선(稜線), 지평선(또는 수평선)의 끝부분 등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⁵⁾를 말한다. 이렇게 보이는 범위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에 해당되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험을 수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낮은 능선(제1가시권) 뒤에 높은 능선(제2가시권)이 보

1) 땃감은 나무를 구하기 힘든 고산지대에서는 야생 동물 혹은 가축의 변 등을 건조한 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년까지 나무를 이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였기에 나무(木) 그리고 나뭇잎 등이 대표적인 땃감 재료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라고 통칭하며 이하 모두 나무로 전개(展開)한다. 조선일보, [홍익회의 新유대인 이야기], 2021.03.30.

2) 4가지 필수 요인 중 소금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생산되는 곳(巖鹽)이 없다.

3) 현재에도 다른 형태로 이 4가지를 일용재(日用材)로 사용·취득하고 있다.

4) 어떤 자세로 보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또는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그 범위가 달라진다.

5)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육안으로 배경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 20·30리, 정확한 목표물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 최대 5리로 판단하며, 과거의 리(里)를 현재의 개념으로 한다면 최대 약 2km정도 거리로 보고 있다.(이홍중·허의행,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4, 한국고고학회, 2010, 28쪽; 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에 대하여 -삼국시대 산성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4, 호서고고학회, 2006, 65쪽)

이는 경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시간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동기시대 마을 사람들이 어느 범위까지 가서 자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는가를 추정하는 자원가용권(資源可用圈)⁶⁾ 범위이다. 자원가용권은 가시권분계와 거의 같은 범위 또는 좁거나 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원가용권은 시간과 관계되며, 어떤 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왕복)거리, 즉 에너지 투입에 대비 최대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낮은 능선(제 1가시권) 뒤의 높은 능선(제 2가시권)이 가시권분계의 끝이 된다면, 제 2가시권에 해당되는 곳까지 가서 일하고 해가 떠 있는 시간(낮)⁷⁾까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거리가 중요한데 보통 도보로 왕복 4시간 정도 되는 곳(시간)까지 또는, 거리상 10km 내외가 한계 거리⁸⁾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농업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을 기준으로 하여 청동기시대에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당시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과거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일체 강점기 때 제작된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의 범위 등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 6) 어느 사람(혹은 어느 공동체 등)이 식량·물·벨감·나무 등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또는 자원유역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이나 거류지에서부터 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커진다는 가정이다.(배기동, 『고고학이론입문』, 학연문화사, 1991, 98~99쪽)
 - 7) 동지(冬至)와 하지(夏至)의 낮 시간을 보면 매우 큰 시간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사람의 도보로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행위는 계절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보통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 8) 이희준, 『현대고고학』, 사회평론, 2016, 264~265쪽; 배기동, 앞의 책, 99쪽; 여기서는 반경 10km, 도보로 2시간 거리라고 되어 있으며, 농경 공동체는 5km, 도보로 1시간 되는 범위에서 경작을 한다. 아래의 유튜브에 보면 현재 라오스에서 화진하러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대략적인 거리와 시간 등을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ADvJWjS9Qo>, <https://www.youtube.com/watch?v=thKfTo2jka0>

그러면 우선 가시권분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되며, 다음으로 자원가용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합하여 청동기시대 마을의 자원가용권 범위가 대략 만들어질 것이며, 이 범위 내에서 물·식량·나무의 수급(需給)에 대한 분석을 추론한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지까지의 거리, 물을 구하기 위한 거리, 식량을 구하기 위한 채집과 경작 가능한 범위, 교역 등을 위한 강(江·川)까지 거리 등을 지도에서 계상(計上)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을의 크기·규모·범위 등과 비교·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지도에 대입해서 보면 마을의 성격 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4가지 필수 요인 중 소금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생산되는 곳(巖鹽)이 없다. 그러면 모두 바닷가에서 생산하여 내륙으로 공급하였다는 것이며, 소금의 공급에 대한 기록⁹⁾이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의 분석 결과는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 있는 곳의 자연환경 등에 대입해 보면 최소한 마을 유적의 자원에 대한 접근 범위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며, 마을의 거주자 규모의 변화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이 파악된다면 마을의 위계 등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마지막으로 본고의 청동기시대 유적 범위는 앞서 발표한 논문의 범위인 경산지역¹¹⁾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여기서 경산지역이란 지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동과 동구 반야월·안심 일대¹²⁾로, 당시에는 경상북

9) 김병욱, 『소금의 문화사』, 가람기획, 2001, 16쪽·18쪽;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KBS, 2007, 『차마고도』5편, 「히말라야 카라반」. 참조.

10) 유적지 주변의 조망권 확보는 유적의 방어와 과시, 주변 유적지에 대한 통제(김종일,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경관의 고고학』 64, 2005,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31쪽)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취락의 위계와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입지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홍중·허의행, 앞의 논문, 2010, 25쪽).

11) 이희준, 「경산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34, 영남고고학회, 2004, 6쪽.

정상수·방선지,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으로 본 인구의 변화」,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10~11쪽.

12)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년 4월 13일)

도 경산시 안심읍과 고산면 일원을 포함하는 지금의 경산시를 공간범위로 한다. 이와 함께 청동기시대 경산지역의 유적 중 주거지는 <표 1>, 무덤은 <표 2>와 같이 정리되며, 위치는 <그림 1>·<그림 2>와 같다. 여기서는 각 유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며, 거주자 변화양상 등의 자료는 정상수·방선지의 앞의 논문¹³⁾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후에 보고된 유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 새로 보고된 유적의 시기·거주자 수 추정 등은 정상수·방선지의 앞의 논문¹⁴⁾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기에 세부적인 방법과 내용은 생략하였다. 대상유적은 지금까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임을 밝히며, 고찰에는 추론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앞에 언급한 정상수·방선지의 앞의 논문¹⁵⁾과 연계된 논문임을 밝히며, 이 논문을 읽을 때 앞의 논문과 같이 비교·대조하면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과 의도를 더 빠르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경산지역 청동기 유적

경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는 <그림 1>·<그림 2>와 같으며, 주거지 유적은 37개소(<표 1>), 무덤 유적은 17개소(<표 2>), 주거지와 무덤이 같이 있는 유적은 10개소, 주거지만 있는 유적 27개소, 무덤만 있는 유적 7개소이다. 앞서, 발표한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인구 변화¹⁶⁾와 비교할 때 9개소의 유적이 추가되었으며, 본고의 유적번호 36번 이후는 새로이 보고된 유적이다. 추가된 유적은 2021년까지 발행된 보고서 중에서 수집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거지 유적은 안촌리 유적, 안촌리Ⅱ유적, 양지리유적, 경산지식산업지구, 소월리 산1-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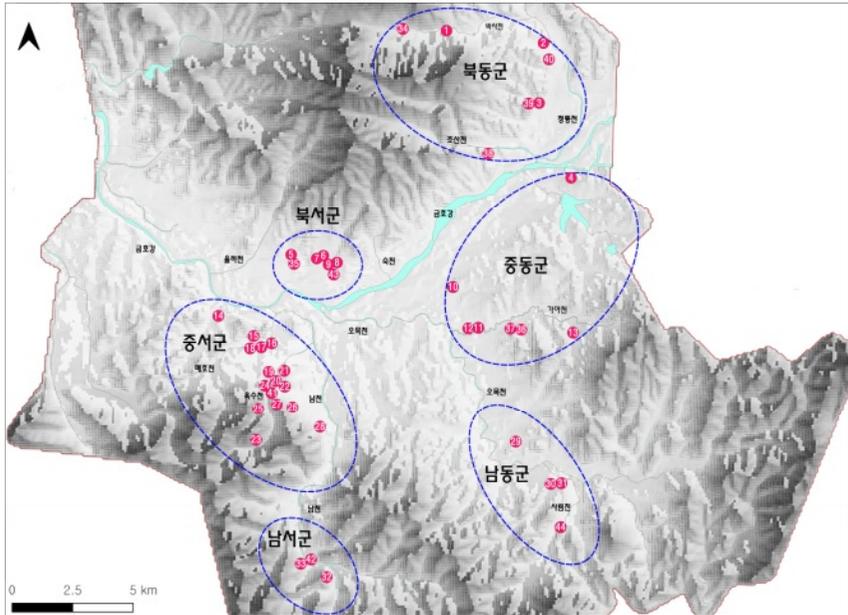
13)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14)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15)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16)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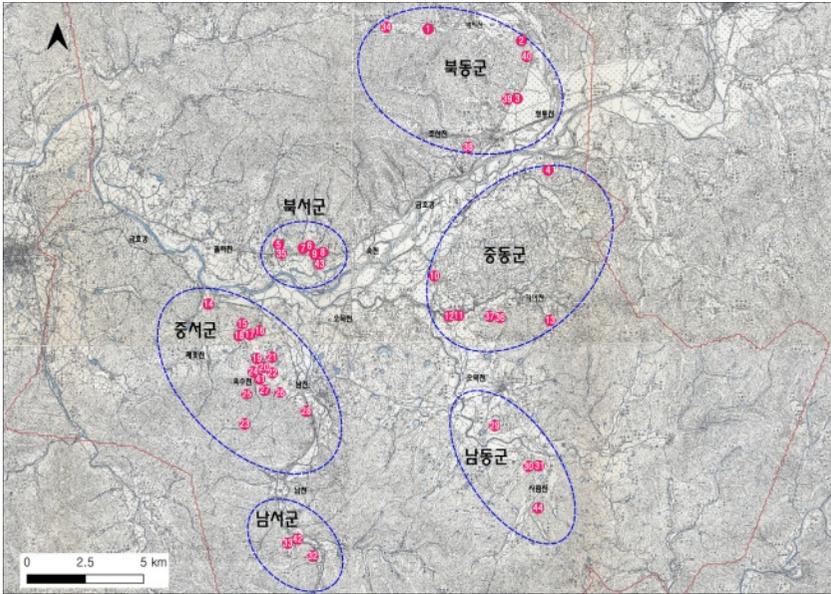
유적, 옥산동 677-7번지유적, 삼성리 215-7번지유적, 괴전동 125번지 유적 등 8개소이다. 또 무덤 유적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갈지리 산16-1번지유적 등 2개소이며,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주거지와 무덤 둘 다 조사된 유적이다.



〈그림 1〉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DEM; 축척부동; 번호는 <표 1>·<표 2>의 유적번호)

이를 정리하면 주거지는 총 614기가 보고되었는데, 시기로 1기는 10기, 2기는 97기, 3기는 403기, 4기는 6기, 시기를 알 수 없는 유구는 98기이다. 또한 무덤은 175기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상석(고인돌)으로 133기가 있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기는 2기, 2기는 22기, 3기는 32기, 4기는 3기,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11기이다.¹⁷⁾

17)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재호 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33~36쪽·246~247쪽; 김권구, 「청동기시대 시지지역의 마을



〈그림 2〉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번호는 <표 1>·<표 2>의 유적번호)

주지하다시피, 이들 유적의 분포를 지도에 놓고 보면 <그림 1>·<그림 2>와 같이 크게 6개의 군(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적의 밀집 정도는 북서군과 중서군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이 북동군, 중동군이다.

또, 유적들의 개별 위치를 지형도 위에 표시하면 <그림 3>에서 <그림 8>과 같으며, 대부분 선상지 또는 산자락의 말단부 등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강(江)과 천(川)은 <그림 1>과 <그림 2>에 있는 이름으로 한다. 이들 유적 중 인구 관련 변화 등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되는 유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른 유적은 앞선 논문¹⁸⁾을 인용하여 논지(論之)한다. 각 유적별 가시권분계와 자원가

과 무덤], 『고대마을 시지』, 국립대구박물관, 2016, 322~329쪽;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11쪽.

용권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적별 주거지 현황 (유적 시기의 1:조기, 2:전기, 3:중기, 4:후기, 0: 시기 모름. 이하 동일)

유적 번호	유 적 명	유구수	유적의 시기별 유구수				
			1	2	3	4	0
1	신한리 취락유적	21	-	1	20	-	-
2	동강리유적	4	-	-	3	1	-
3	대학리유적	1	-	-	1	-	-
4	내리리유적	13	-	4	9	-	-
5	각산동혁신도시유적	1	-	-	1	-	-
6	신서혁신도시유적	1	-	-	1	-	-
7	신서동유적	66	2	23	16	-	25
8	동내동유적	3	-	2	-	-	1
9	괴전동유적	1	-	-	-	-	1
10	선화리1111번지유적	6	-	-	6	-	-
11	가야리유적	2	-	-	2	-	-
13	마곡리유적	1	-	-	1	-	-
14	가천동유적	2	-	-	-	-	2
15	시지동60-1번지유적	2	-	-	2	-	-
18	시지동유적	3	-	1	1	1	-
20	사월동400번지유적	1	-	-	1	-	-
21	중산동160-1번지유적	2	-	1	1	-	-
22	시지지구생활유적	3	-	-	2	-	1
24	옥수동128번지유적	3	-	3	-	-	-
25	옥수동생활유적	1	-	1	-	-	-
26	옥산동300번지유적	44	2	-	42	-	-
27	옥산동29번지유적	1	-	1	-	-	-
28	옥곡동유적	276	2	27	221	2	24
29	서부리451번지유적	4	-	-	4	-	-
30	산양리유적	24	-	-	24	-	-
31	경리440-5번지유적	5	-	5	-	-	-
33	삼성리665번지유적	5	-	2	3	-	-
34	읍양리유적	2	-	-	2	-	-

18)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35	각산동유적	24	1	8	11	2	2
36	안촌리유적	1	-	-	-	-	1
37	안촌리Ⅱ유적	1	-	-	1	-	-
38	양지리유적	54	-	6	11	-	37
39	경산지식산업지구	3	-	-	2	-	1
40	소월리 산1-7유적	1	-	-	-	-	1
41	옥산동 677-7번지유적	4	-	-	3	-	1
42	삼성리 215-7번지유적	1	-	1	-	-	-
43	괴전동 125번지유적	27	3	11	12	-	1
합 계		614	10	97	403	6	98

<표 2> 유적별 무덤 현황 (면적 계상이 가능한 유구 수는 ()에 표기하였다.)

유적 번호	유 적 명	유구수	유적의 시기별 유구수				
			1	2	3	4	0
4	내리리유적	1(1)	-	-	-	-	1(1)
6	신서혁신도시유적	1(1)	-	1(1)	-	-	-
7	신서동유적 (상석; 5기)	83(64)	1(1)	2(2)	17(12)	-	63(49)
8	동내동유적 (상석; 1기)	4(3)	-	3(3)	-	-	1
12	가야리376-1번지유적	1	-	-	-	-	1
16	매호동1008번지유적	2(2)	-	-	-	-	2(2)
17	매호동지석묘유적 (상석; 10기)	15(15)	-	3(3)	4(4)	-	8(8)
18	시지동유적 (상석; 4기)	21(20)	-	6(6)	6(5)	-	9(9)
19	신매동유적	1(1)	-	1(1)	-	-	-
23	옥수동134번지유적	4(4)	-	-	1(1)	-	3(3)
26	옥산동300번지유적	1(1)	-	1(1)	-	-	-
28	옥곡동유적 (상석; 1기)	10(6)	-	2(1)	3(2)	-	5(3)
30	산양리유적	1(1)	-	1(1)	-	-	-
31	경리440-5번지유적	2(2)	-	-	-	-	2(2)
32	삼성리유적 (상석; 3기)	4(3)	-	1(1)	1(1)	-	2(1)
39	경산지식산업지구	16(7)	1(1)	-	-	3(2)	8(4)
44	갈지리 산16-1유적 (상석; 1기)	8(2)	-	1(0)	-	-	6(2)
합 계 (상석; 24기)		175(133)	2(2)	22(20)	32(25)	3(2)	111(84)

Ⅲ.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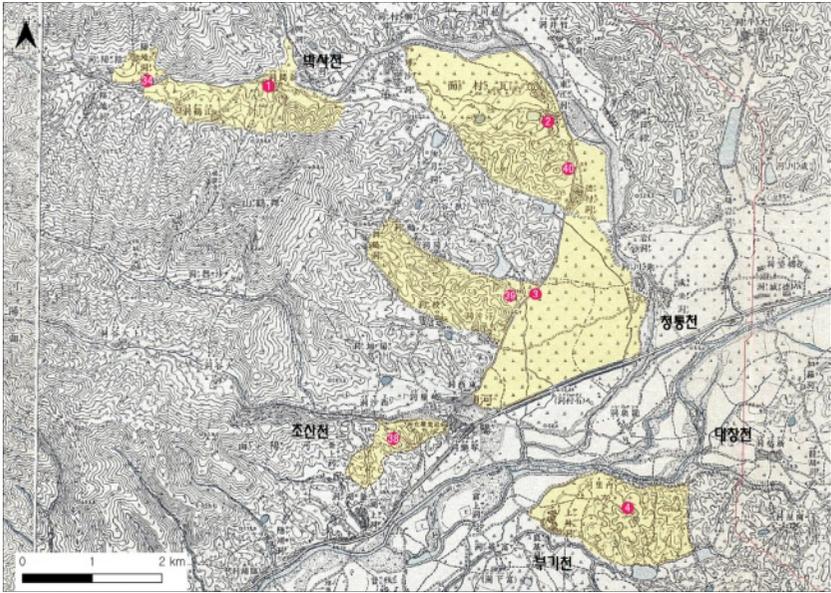
먼저, 경산지역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東)에서 서(西)로 금호강이 관류(貫流)하고 있다. 금호강의 지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북에서 남으로 청통천·조산천·탑소천·은호2천·사탄천·남하천·숙천·올하천 등이 흐르며, 이 중 청통천의 지류로는 박사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지류인 오목천과 남천이 있으며, 이들 지류로 가야천·옥수천·매호천 등이 있다. 금호강에서 보면 남쪽과 북쪽 끝 산 능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지류의 양안(兩岸)에 천들이 흐르고 있다. 이들 하천을 중심으로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유적들은 그룹화 하면 <그림 1>·<그림 2>와 같으며, 각 군별로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1. 북동군 유적은 <그림 3>과 같으며, 신한리¹⁹⁾(1), 동강리(2), 대학리(3), 음양리(34), 양지리(38), 경산지식산업지구(39), 소월리(40), 내리리(4) 등 총 8개의 유적이 있는데, 대학리(3)와 경산지식산업지구(39)는 같은 곳²⁰⁾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며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유적 중 경산지식산업지구(39)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거지만 있다.

먼저, 대학리(3·39)는 동쪽으로는 금호강과 청통천 너머 산 능선까지, 서·남·북쪽은 산지의 능선과 자락이 가시권분계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자원가용권은 산지와 구릉의 능선까지, 강과 천의 가장자리(邊)까지이다. 다만, 평지에 해당되는 청통천의 넓은 곳은 자원가용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으로는 소월리(40) 남쪽의 작은 구릉까지, 남으로는 양지리(38) 동북쪽의 조산천까지로 보인다.

19) 유적명은 동명(洞名)만 기술하고 뒤에 유적번호로 표기하며, 동명이 한 개가 아닌 경우 번지까지 기술한다. 예를 들면 ‘옥수동 128(24)’와 같이 하며, 본고에서는 이하 동일하다.

20) 대학리유적(3)과 경산지식산업지구(39)는 같은 유적으로 보고 이하 대학리(3·39)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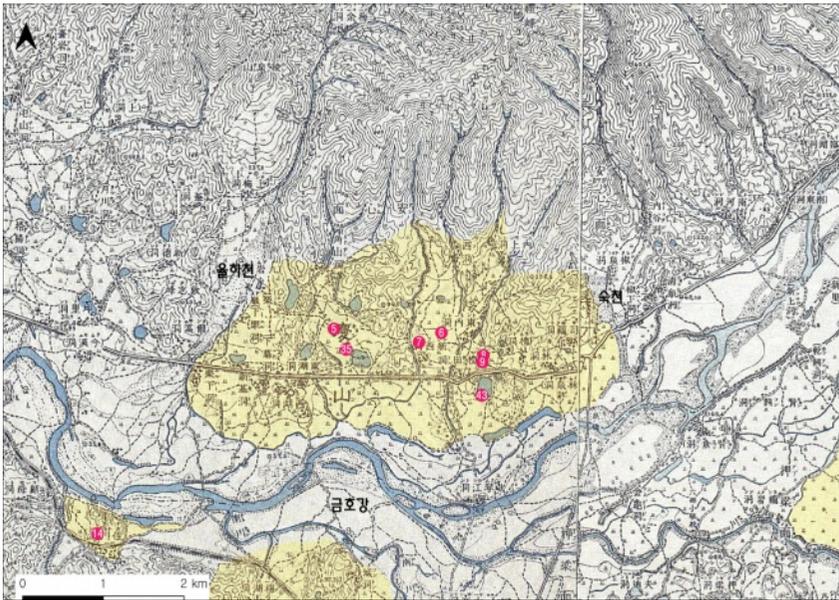
〈그림 3〉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북동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다음으로 동강리(2)와 소월리(40)의 가시권분계는 동쪽은 청통천 너머 구릉의 능선, 서쪽으로 산 능선, 남쪽은 금호강 너머의 구릉 능선, 북쪽은 청통천을 따라 보이는 양안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청통천의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동강리(2)와 소월리(40)는 다른 마을이거나, 소월리(40)가 대학리(3·39)권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가용권으로 보면 동강리(3)는 박사천과 청통천 사이 그리고 남서편의 산자락까지로 짐작되는데 반해 소월리(40)는 산자락과 대학리(3·39)와 어느 경계까지가 자원가용권의 범위로 보인다. 또한 양지리(38)는 대학리(3·39)의 청통천쪽의 가시권은 아니지만 금호강 동쪽의 더 넓은 가시권을 가지며, 자원가용권도 조산천까지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신한리(1)와 음양리(34)는 박사천을 따라 있는 골짜기이

며, 동·서쪽은 골짜기를 따라 보이는 곳까지, 남쪽과 북쪽은 산 능선 모두 가시권분계이다. 하지만 이들 두 유적의 자원가용권은 남쪽의 산자락의 어디까지와 골짜기의 개간 가능한 곳에만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리리(4)의 가시권분계를 보면 동쪽은 금호강 양안의 영천쪽, 서쪽은 북서군이 있는 금호강과 그 주변의 산지, 남쪽은 가야리(11)·마곡리(13)·안촌리(36) 등의 유적과 그 사이에 있는 구릉 너머의 높은 산이며, 북쪽은 금호강 너머 청통천 양안이 보이는 곳까지이다. 그러나 이 유적의 자원가용권은 동쪽과 남쪽은 구릉일대, 서쪽과 북쪽은 금호강변까지로 보인다.



<그림 4>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북서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2. 북서군은 <그림 4>와 같이 유적이 분포하는데, 각산동혁신도시(5), 신서혁신도시(6), 신서동(7), 동내동(8), 피전동(9), 각산동(35), 피전동

125(43) 등 총 7개이며, 주거지만 있는 유적은 4곳(5·9·35·4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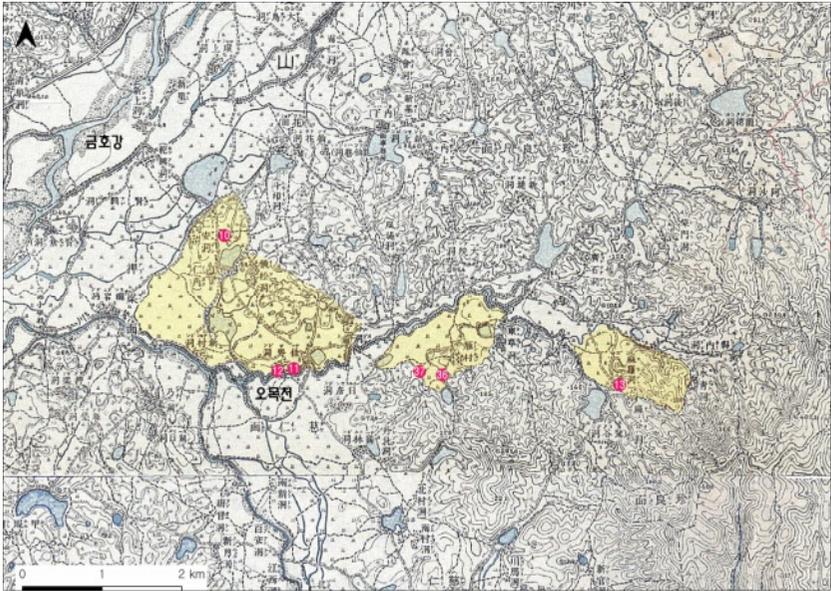
이들 유적의 가시권분계는 동쪽의 선화리(10)와 가야리(11·12)가 있는 구릉과 그 동편에 있는 산 능선, 서쪽은 반야월 일대의 금호강 양안(兩岸) 등이다. 남쪽은 시지유적과 남쪽의 산지를 잇는 산 능선, 북쪽은 북서군 북편의 산능선이다. 그렇지만 이들 유적의 자원가용권은 금호강의 지류인 동쪽의 숙천, 넓게 보면 남하천까지, 서쪽의 경계는 율하천까지로 생각되며, 남쪽은 금호강 가장자리, 북쪽은 산자락까지이다. 자원가용권은 각 유적과 사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이름 없는 작은 천들과 금호강변이 실질적인 범위인데, 이들 각 유적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유적들의 전체 자원가용권은 동쪽의 숙천(혹은 남하천), 서쪽은 율하천, 남쪽은 금호강 범람원 이내, 북쪽은 산자락의 구릉까지이다.

3. 중동군은 <그림 5>와 같으며 각 유적은 선화리(10), 가야리(11), 가야리376-1(12), 마곡리(13), 안촌리(36), 안촌리Ⅱ(37) 등 총 6개 유적이다. 이들 유적 중 가야리376-1(12)는 무덤만 확인되며, 내리리(4)는 주거지와 무덤, 이외의 다른 유적은 주거지만 확인된다. 이 중동권은 내리리(4), 선화리(10) 그리고 나머지 4곳의 유적은 다른 유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선화리(10)의 가시권분계는 동쪽은 구릉 능선과 그 너머의 높은 구릉(또는 산) 능선, 서쪽은 북서군과 그 주변, 남쪽은 오목천 양변(兩邊)과 그 주변, 북쪽은 금호강 너머 정도이다. 선화리(10)의 자원가용권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까지로 대략 왕복 4시간 혹은 약 10km내외로 생각되나, 남쪽의 가야리(11)와 가야리376-1(12)유적으로 인해 그 범위가 좁아 보인다.

그리고 가야리(11), 가야리376-1(12), 마곡리(13), 안촌리(36), 안촌리Ⅱ(37)로 모두 오목천의 지류인 가야천 양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적의 가시권분계를 보면 동쪽은 가야천 양안과 높은 구릉(산)의 능선, 서쪽 중서군 사이에 있는 구릉과 그 너머의 산 능선, 남쪽은 가야리(11)와 가야리376-1(12)은 남동군의 산 능선, 안촌리(36)와 안촌리Ⅱ(37)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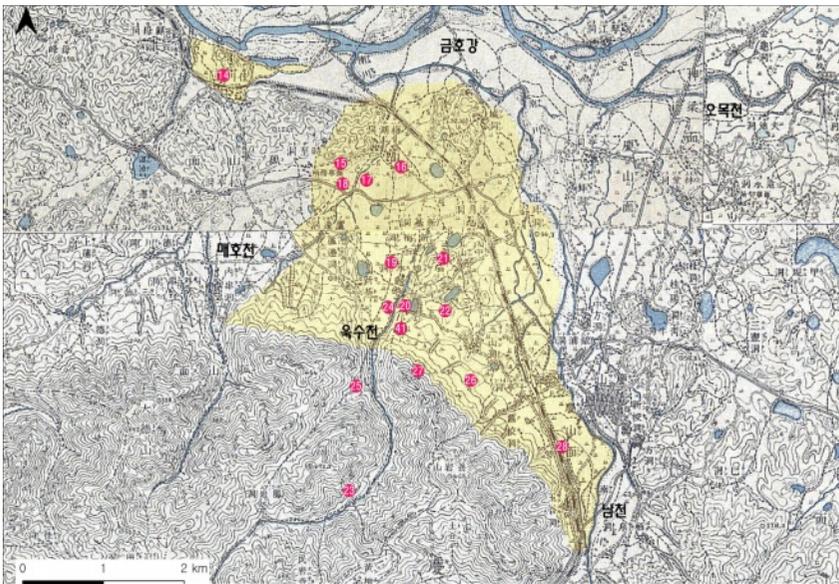
남쪽의 구릉, 북쪽은 금호강과 그 사이에 있는 구릉과 금호강 너머의 산능선이다. 이들 유적의 자원가용권은 가야리(11)가 오목천 지류의 남쪽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서쪽의 완만한 구릉 자락일대와 구릉에 해당되며, 안촌리(36)와 안촌리Ⅱ(37)는 오목천 지류의 범람원 이내와 남쪽의 구릉 일부로 보인다.



〈그림 5〉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중동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4. 중서군은 <그림 6>과 같이 분포하며, 가천동(14), 시지동60-1(15), 사월동400(20), 중산동160-1(21), 시지지구(22), 옥수동128(24), 옥수동생활(25), 옥산동29(27), 옥산동677-7(41)은 주거지 유적, 시지동(18), 옥산동300(26), 옥곡동(28)은 주거지와 무덤, 매호동1008(16), 매호동지석묘(17), 신매동(19), 옥수동134(23)은 무덤이 확인된 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남천과 그 지류인 옥수천과 매호천의 주변 또는 양안에 있으며, 옥수동생활(25)과 옥수동134(23)은 산지에 해당된다. 이들 유적들은 가천동(14)을 제외하고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동쪽은 남천 너머의 구릉 능선, 서쪽과 남쪽은 산 능선, 북쪽은 북서군과 그 북쪽의 산 능선이 가시권분계이다. 이 유적들의 자원가용권은 동쪽의 남천, 서쪽은 구릉 능선, 남쪽은 산골짜기, 북쪽은 남천과 옥수천·매호천이 만나는 곳 일대까지이다. 특이한 점은 옥수동생활(25)과 옥수동134(23)가 산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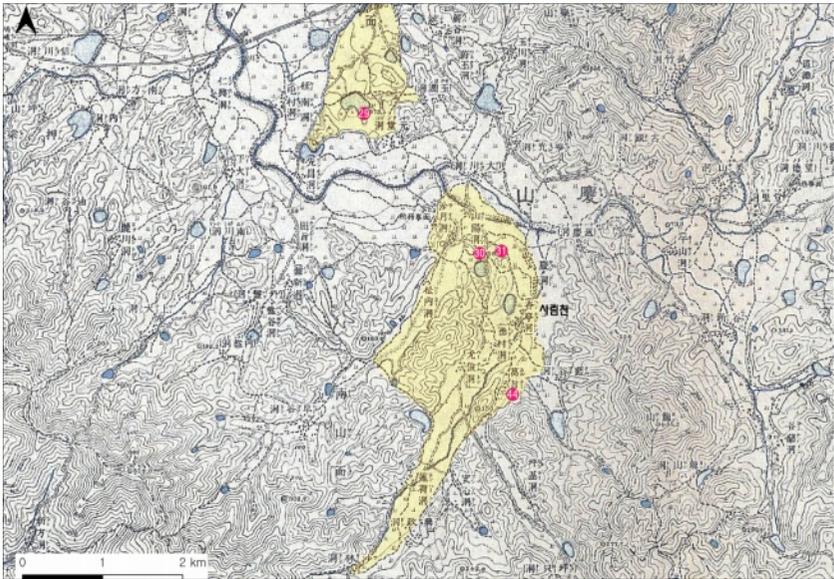


<그림 6>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중서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5. 남동군은 <그림 7>과 같이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부리(29), 산양리(30), 경리(31), 갈지리(44)이며, 서부리(29)는 주거지, 갈지리(44)는 무덤, 산양리(30)와 경리(31)는 주거지와 무덤이 확인된다. 가시권분계를 보면 서부리(29)는 동쪽과 서쪽은 구릉 능선, 남쪽은 산양리(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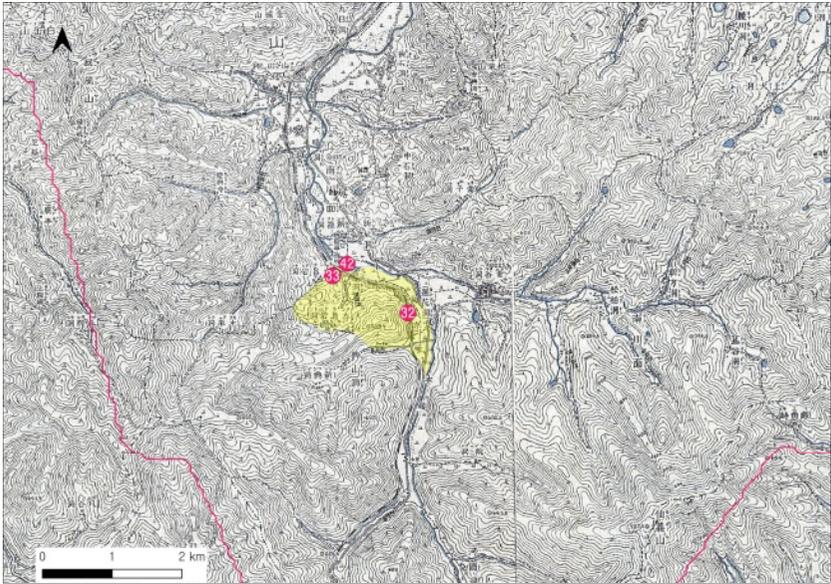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정상수·방세현)

경리(31) 일대와 주변의 구릉 능선, 북쪽은 가야리(11)와 금호강까지 오목천의 양안이며, 자원가용권은 4km 범위 내 작은 개울을 경계로 한 주변 일대와 구릉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산양리(30)와 경리(31)의 가시권 분계는 동쪽은 오목천의 양안, 서쪽은 산 능선, 남쪽은 갈지리(44) 너머의 구릉 능선, 북쪽은 오목천 양안이다. 자원가용권은 오목천 범람원 내의 범위와 개울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지리(44)의 가시권분계는 동·서·남쪽이 산 능선, 북쪽은 서부리(29)와 오목천 양안이며, 자원가용권은 북쪽으로 산양리(30)와 경리(31)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이다.



<그림 7>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남동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6. 남서군은 <그림 8>과 같으며, 유적은 삼성리665(33), 삼성리215-7(42)에서 주거지, 삼성리(32)에서 무덤이 확인된다. 가시권분계는 동·서쪽은 산 능선, 남·북쪽은 남천의 양안이다. 자원가용권은 남천 주변과 골짜기 그리고 산사면 정도이다.



<그림 8>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남서군 유적 위치도 (일제시대 지도; 축척부동; 노란색이 추정 자원가용권 범위)

지금까지 유적의 분포에 따라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에 대해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V. 가시권분계·자원가용권과 인구에 대한 논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강(江)과 천(川)의 주변과 지류(支流)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자락(또는 선상지)과 나지막한 구릉의 사면(斜面) 등에 있다. 유적들은 발굴조사 되었으며, 보고서가 간행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다시 알리며,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다고 유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상수·방선지의 앞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정상수·방세현)

의 논문²¹⁾이 발표된 이후 추가된 유적의 거주자와 관련해서 <표 3>·<표 4>와 같다.

<표 3> 주거지 유적 시기별 노지로 본 거주자 수 추정

유적 번호	출토 유구수	시기	대상 유구수	출토 노지 총수	최소 거주자			최대 거주자		
					평균	표준 편차	총 거주자	평균	표준 편차	총 거주자
36	1	0	1/1	1	3.00	0.00	3.00	5.00	0.00	5.00
37	1	3	0/1	-	-	-	-	-	-	-
38	54	2	3/6	5	2.67	2.83	16.00	8.33	4.71	50.00
		3	5/11	6	3.60	1.20	39.60	6.00	2.00	66.00
		0	15/37	17	3.19	0.73	117.94	5.31	1.21	196.56
39	3	3	2/2	2	3.00	0.00	6.00	5.00	0.00	10.00
		0	11	1	3.00	0.00	3.00	5.00	0.00	5.00
40	1	0	1/1	1	3.00	0.00	3.00	5.00	0.00	5.00
41	4	3	3/3	3	3.00	0.00	9.00	5.00	0.00	15.00
		0	0/1	-	-	-	-	-	-	-
42	1	2	1/1	1	3.00	0.00	3.00	5.00	0.00	5.00
43	27	1	1/3	3	9.00	0.00	27.00	15.00	0.00	45.00
		2	9/11	11	3.67	1.89	40.33	6.11	3.14	67.22
		3	4/12	4	3.00	0.00	36.00	5.00	0.00	60.00
		0	0/1	-	-	-	-	-	-	-

<표 4> 주거지 유적 시기별 면적으로 본 거주자 수 추정

유적 번호	출토 유구수	시기	대상 유구수	면 적		거주자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총 거주자
36	1	0	0/1	-	-	-	-	-
37	1	3	1/1	11.49	-	4.95	-	4.95
38	54	2	5/6	24.51	12.62	7.04	1.46	42.26
		3	8/11	11.27	4.23	4.56	1.17	50.15
		0	20/37	11.51	6.77	4.25	1.50	157.08
39	3	3	0/2	-	-	-	-	-
		0	0/1	-	-	-	-	-
40	1	0	0/1	-	-	-	-	-
41	4	3	0/3	-	-	-	-	-
		0	0/1	-	-	-	-	-

42	1	2	1/1	18.15	-	6.46	-	6.46
43	27	1	2/3	21.09	5.54	6.77	-	20.32
		2	5/11	17.87	8.22	6.42	0.89	70.67
		3	6/12	19.21	9.71	6.35	1.80	76.23
		0	0/1	-	-	-	-	-

북동권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박사천구역, 청통천구역, 금호강 북구역, 금호강 남구역이다(<그림 3>). 먼저, 박사천구역은 신한리(1)와 음양리(34)이며 이 중 거주자 수가 파악되는 신한리(1)는 시기2가 6.95명(면)²²⁾이, 시기3은 60~100명(노)과 108.4명(면)이다. 시기2와 시기3의 자연경관은 변화가 그리 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천변의 경작지 조성 외에는 구릉이나 산에서 수렵·채집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박사천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원가용권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았을 것이다.

청통천구역은 여기서는 북쪽의 동강리(2)와 소월리(40), 남쪽의 대학리(3·39)로 구분된다. 먼저, 북쪽의 동강리(2)는 시기3에 12~20명(노) 또는 13.89~17.13명(면)이, 시기4에 7.41명(면)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사천과 청통천의 합수부 부근으로 볼 때 박사천의 남쪽과 청통천의 서쪽은 자원가용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쪽의 대학리(3·39)는 시기3에 18~30명(노) 또는 18.78명(면적)의 거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무덤은 시기1이 1기, 시기4가 3기, 시기0이 8기 등으로 주거지와 시기가 다른 무덤이 있다. 따라서 무덤과 주거지 비로 계상하여 볼 때 이곳은 주거 공간보다 무덤(혹은 제의) 공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원가용권은 <그림 3>의 범위보다 작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호강 북구역의 양지리(28)는 시기2의 거주자 수는 12~20명(노) 혹

21)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22) 거주자 숫자 뒤의 (면)은 면적에 의한 거주자 수 계상, (노)는 노지에 의한 거주자 수 계상을 말하며, 이하 동일하다. 거주자 수 계상 방법은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 2018, 11~1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은 26.16명(면)이고, 시기3은 34.74~57.87명(노)이며, 시기0은 117.94~196.56명(노)과 157.08명(면)이다. 양지리(28)는 초산천·금호강 사이를 자원가용권 범위로 볼 수 있으며, 금호강을 이용한 물류가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금호강 남구역의 내리리(4)는 시기1인 무덤 1기와 시기2에 12~20명(노) 또는 26.16명(면)과 시기3에 34.74~57.87명(노)의 거주자가 있다. 이 유적은 금호강 남쪽, 대장천과 부기천 사이가 자원가용권이며, 금호강과 대장천을 따라가면 지금의 영천읍과 금호읍 등과 연결된다.

북서군은 금호강의 북편으로 동쪽의 숙천과 서쪽의 율하천 사이에 해당되는데, 이 북서군 내에서 골짜기(川)로 인해 동구역(東區域)·중(中)구역·서(西)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구역은 동내동(8)·괴전동(9)·괴전동125(43)이며, 시기1에 거주자가 27~45명(노) 또는 20.32명(면)으로 계상된다. 또 시기2에는 40.33~67.22명(노) 혹은 70.67명(면), 시기3에는 57~95명(노)내지 76.23명(면)의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기2에 동내동(8)에 무덤 3기가 있다. <그림 4>처럼 서쪽의 골짜기를 경계로 동구역과 중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적인 자원가용권의 범위도 서쪽으로는 이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중구역은 신서혁신도시(6)과 신서동(7)으로 <그림 4>를 보면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곳이며, 시기1에 9~15명(노) 또는 14.6명(면)이, 시기2에 87.86~146.28명(노) 혹은 136.62명이, 시기3에 61.72~102.76명 내지 89.88명이 거주한 것으로 계상된다. 이외에 시기0에 90~150명 혹은 105.50명이 있는데, 시기0의 거주자 수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2의 거주자 수가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서구역은 각산동혁신도시(5)와 각산동(35)으로 동쪽은 중구역과 사이로 보이지만 서로는 율하천까지가 범위로 보인다. 시기1에 6~10명(노) 또는 7.73명(면)이, 시기2에 42~70명(노) 혹은 57.46명(면)이, 시기3에 40.71~67.86명(노) 내지 14.47명(면)이, 시기4에 13.20명(면)이 거주한 것으로 계상된다. 이 북서군에서 시기4가 있는 유

적은 각산동(35) 한곳이며, 이 북서군은 금호강 북편으로 자원가용권은 <그림 4>의 범위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

중동군은 6개유적으로 선화리(10)·가야리(11)·가야리376-1(12)·마곡리(13)·안촌리(36)·안촌리Ⅱ(37) 등이며, 오목천과 지류인 가야천 변에 위치한다. 선화리(10)는 금호강과 오목천 사이에 있으며, 시기3에 18~30명(노) 혹은 17.39명(면)이 거주한 것으로 계상된다. 자원가용권의 범위는 남서쪽은 범람과 관련해서 좁을 것으로 보이며, 동쪽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야리(11)는 시기2에 6~10명(노)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가야리376-1(12)는 시기0의 무덤이 있다. 여기서 자원가용권은 가야천의 범람원까지이며 북쪽은 산지로 확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무덤이 시기0으로 주거지와 시기 등의 관련성은 알 수 없지만 가야리(10)와 가야리376-1(12)은 같은 유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안촌리(36)·안촌리Ⅱ(37)는 시기3에 4.35명(면)이 시기0에 3~5명(노)이 있었던 것으로 1~2채의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보인다. 자원가용권은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비교해 북쪽은 가야천의 범람원까지로 줄어들어야 할 것 같고 남쪽은 산지로 더 넓혀야 될 것 같다. 마곡리(13)는 시기3에 3~5명(노) 또는 6.35명(면)이 거주하였는데, 산지로 가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원가용권은 <그림 5>보다 남쪽으로 좀 더 확장되어야 될 것 같다.

중서군은 남천구역·옥수천구역·매호천구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천동(14)은 주거지 2기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시기 등을 알 수 없으며, 옥수동생활(25)과 옥수동134(23)은 산지에 떨어져 있어서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남천구역은 옥곡동(28)인데, 시기1에 6~10명(노) 혹은 13.56명(면)이, 시기2에 162~270명(노) 또는 208.71명(면)이, 시기3에 888.42~1480.7명(노) 내지 1133.73명(면)이, 시기4에 12~20명(노) 또는 13.5명(면)이, 시기0에 72~120명(노) 내지 77.04명(면)이 거주하였다. 무덤은 시기2에 2기, 시기3에 3기, 시기0에 5기이며, 무덤/주거지 비율이 시기2는 0.07, 시기3은 0.01로 주거지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주거자의 수로 볼 때 자원가용권은 <그림 6>에서보다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옥수천구역은 신매동(19)·사월동400(20)·중산동160-1(21)·시지지구(22)·옥수동128(24)·옥산동300(26)·옥산동29(27)·옥산동677-7(41) 등이다. 이 구역에는 시기1에 12~20명(노) 내지 16.7명(면)이, 시기2에 11~20명(노) 혹은 15.99명이상(면)이, 시기3에 201~335명(노) 또는 335.29명(면)이, 시기4에 9~15명이 거주하였다. 그렇지만 무덤은 시기2에 신매동(19)에 1기뿐이어서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매호천구역은 주거지는 시지동60-1(15)·시지동(18)이 있고, 무덤은 매호동1008(16)·매호동지석묘(17) 등이 있다. 거주자를 보면 시기2에 3~5명(노)이, 시기3에 9~15명(노) 또는 16.16명(면)이, 시기4에 3~5명(노) 혹은 7.19명(면)이다. 그에 반해 무덤은 시기2에 3기, 시기3에 4기, 시기0에 10기 등으로 무덤이 주거지 보다 많으며, 또 중서권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옥수동생활(25)은 산의 5부 능선 정도에 시기2의 주거지 1기에 5.21명(면)이 거주한 것으로 계상된다. 또 옥수동134(23)은 옥수천의 골짜기를 따라 가야 있는 시기3이 1기, 시기0가 3기 이 유적은 가장 가까운 옥산동677-7(41)에서 직선거리로 2.5km 이상 떨어져 위치한다.

남동권은 오목천의 상류와 그 지류인 사림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는 서부리(29), 산양리(30), 경리(31), 갈지리(44) 등이 있으며, 주거지 1곳과 무덤 1곳 그리고 주거지와 무덤 2곳이다. 서부리(29)는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기3에 12~20명(노) 또는 21.4명(면)의 거주자가 있었다. 산양리(30)와 경리(31)는 시기2에 15~25명(노) 혹은 27.1명(면)이, 시기3에 84.72~141.12명(노) 또는 121.92명이 있었던 것으로 계상되며, 무덤은 시기2에 1기, 시기0에 2기가 있다. 갈지리(44)는 무덤만 있는데 시기2에 1기, 시기0에 6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남동권은 서부리(29)에서 산양리(30)와 경리(31)까지 직선거리가 약 2.5km 떨어져 있어서 서부리(29)와 산양리(30)·경리(31)와는 다른 마을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산양리(30)·경리(31)는 마을과 무덤이 같이 있으며, 갈지리(44)와는 사린천을 따라 2km 정도 거리가 있다. 자원가용권은 <그림 7>의 표시 범위와 조급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서권은 남천의 상류에 해당되며, 삼성리665(33), 삼성리215-7(42), 삼성리(32)가 있다. 주거지는 삼성리665(33)와 삼성리215-7(42)로 거주자는 시기2에 9~15명(노) 내지 19.48명(면)이, 시기3에 18.27명(면)이 있었던 것으로 계상되며, 무덤은 삼성리(32)로 시기2에 1기, 시기3에 1기, 시기0에 2기가 있다. 자원가용권은 <그림 8>의 범위보다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천이 흐르는 방향의 우측은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서군과 중서군은 서로 보았으며, 북서군은 중동군과 북동군의 어느 곳을, 또 중서군은 북동군의 일부는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가시권분계의 범위 내에 있어 서로서로 감시와 교류 그리고 경쟁·협력 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동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들 자원가용권은 금호강을 경계로 남북이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었고, 북서군과 중서군 내에서도 서로간의 감시와 협력 그리고 경쟁·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북서군과 중서군은 전체로 볼 때 1개의 큰 마을이라고 해도 되지만 세분하면 골짜기와 천을 따라 3개의 마을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북서군은 시기1부터 시기4까지 거주자가 있었는데, 시기1은 동구역과 중구역이 각각 무덤 1기로 같지만 거주자 수에서 동구역이 앞섰다. 그렇지만 시기2가 되면 무덤수는 각각 3기이지만 거주자 수에서 중구역이 약 2배 정도 많다. 그리고 시기3이 되면 중구역이 무덤 17기이지만 거주자 수는 동구역에 비해 조금 많다. 물론 동구역에는 없지만 중구역에는 시기0에 무덤 63기와 거주자가 있어서 이 무덤과 거주자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에 따라 중구역이 동구역보다 큰 마을로 본다. 그렇지만 서구역은 시기1부터 시기4까지 거주자 수는 다른 구역보다 적지만 시기4는 오직 서구역에서 관찰된다. 이런 결과는 북서군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으며 북동군 혹은 중동군에서 볼 때 관찰이 잘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음 중서군은 천을 따라 구분되는데, 시기1에는 남천구역과 옥수천 구역에 비슷한 거주자가 있었는데, 시기2가 되면 남천구역에 무덤 2기에 거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반해 옥수천구역은 시기1과 비슷한 거주자가 있으며, 매호천구역에 무덤 3기와 거주자가 나타난다. 이에 더해 시기3이 되면 남천구역은 거주자가 500%이상 증가하는데 무덤은 3기이며, 옥수천구역은 거주자가 1000%이상 늘어나지만 총 거주자 수는 남천구역이 4배 이상 된다. 그리고 시기3에 남천구역은 무덤 3기가 있는데 비해 옥수천구역은 무덤이 없고, 매호천구역은 4기로 늘어나며 거주자 수도 소폭 늘어난다. 그렇지만 시기4가 되면 거주자 수가 남천구역과 옥수천구역은 급감하지만 매호천구역은 조금 줄어든다. 여기에 시기0의 무덤이 남천구역에 5기, 매호천구역에 10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천구역과 매호천구역이 무덤과 주거지가 있는 마을이지만 매호천구역이 무덤과 관련된 마을이 아닐까한다. 또 옥수천구역의 경우 무덤이 산 속인 옥곡동(28)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하며, 옥수동생활(25)은 시기2의 채집과 관련된 임시 주거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산 속으로 피난한 주거지가 아닌가 한다. 남천구역과 옥수천구역의 거주자 수 증가로 볼 때 <그림 6>의 자원가용권 범위가 남쪽의 산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북동군은 금호강의 남·북과 청통천 그리고 박사천 등의 변(邊)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리(3·39)는 무덤이 시기1에 1기, 시기4에 3기, 시기0에 8기 등 무덤이 총 12기이지만 거주자는 3기에 주거지 3기와 시기0에 주거지 1기로 주거지보다는 무덤이 많은 곳이다. 이 대학리(3·39)는 금호강과 청통천이 만나는 곳에 해당되며, 양지리(38)와 약 2.5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북동군은 각각의 자리에서 생존하면서 금호강을 따라 교류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금호강과 청통천이 만나는 대학리(3·39)가 교류장소와 의식의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북동군은 금호강을 따라 영천으로 가는 통로로 계속 이어지면 경주와 연결된다. 이로 보아 내리리(4)와 양지리(38) 그리고 대학리(3·39)는 금호강의 동쪽에 있는 세력과 교류하는 통로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군과 남서군은 청도와 연결되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도와 교류하는 곳으로 보인다. 또 중동군은 골짜기를 따라 가면 남동군과 연결되며, 크게 보면 오목천을 따라 형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동군은 무덤이 시기0에 1기인데 비해, 남동군과 남서군은 무덤만 있는 유적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과 떨어진 곳에 무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무덤만 있는 유적은 청도에서 오는 길의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나야 마을이 있어 이 무덤들은 이정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서군과 중서군을 볼 때 무덤이 주로 출토되는 유적이 있는 점, 다른 군에서도 무덤만 있는 것으로 볼 때 1개의 큰 마을로 볼 수 있는 곳은 무덤과 주거지의 공간 구분이 있었으며, 금호강 너머 잘 보이는 곳과 길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무덤 특히 지석(고인돌)이 마을의 상징(랜드마크)의 기능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례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북서군과 중서군은 각각 1개의 큰 마을이며,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지류인 옥수천·매호천)을 낀 마을이며, 마을 내 최대 거리가 3km 내외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 범주 내에서 경작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에서 목재를 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마을의 어느 쪽이든 산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마을은 독자적 생존이 아니라 강변과 천변에 위치함으로써 식수나 수렵이나 또는 채집 등의 생업활동 이외에 물길을 이용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가지권분계와 자원가용권을 대상으로 경산지역의 청동기 시대 유적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산지역은 북서군과 중서군을 하나의 큰 마을로 볼 수 있으며, 이 큰

마을 내에 작은 마을이 있다. 이들 작은 마을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주로 무덤과 관계된 마을이다.

또 무덤은 주거지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무덤만 있는 유적이 있다. 앞의 북서군과 중서군은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볼 수 있어 무덤만을 위한 마을이 있는데, 구릉상에 위치한 지석(고인돌)은 북서군과 중서군의 마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평지나 골짜기 그리고 천을 따라 있는 무덤(지석)은 이정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리(39)·내리리(4)·가야리376-1(12)·삼성리(32)·갈지리(44) 등이다.

그리고 시기1과 시기4의 유적이 있는 곳은 북서군·중서군뿐이며, 시기1은 북서군은 구역에 관계없이 생기지만 중서군은 남천구역과 옥수천 구역에 관찰된다. 그렇지만 시기4는 북서군은 서구역에만 있지만, 중서군은 3개 구역 모두에서 조사·보고되었다. 이로 볼 때 시기4가 되면 경산지역에서 북서군의 1곳과 중서군에만 거주자가 있었고 다른 곳에는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가시권분계에서 가장 큰 2개의 마을이 서로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영천과 가까운 북동군은 금호강변의 유적인 북서군과 중서군이 모두 볼 수 있었다. 관찰할 수 있으면 자원가용권 범위는 자연환경이 허락하는 곳까지 일 것이며, 다른 곳으로 확장은 인구수와 도구 등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서군의 남천구역의 거주자가 자급자족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하다. 소금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내륙에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류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호강과 남천 그리고 청통천이 물자 교류를 위한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산지역 청동기시대는 북서군과 중서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관찰·감시·교류·협력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병욱 옮김, 『소금의 문화사』, 가람기획, 2001.
- 배기동 역, 『고고학이론 입문』, 학연문화사, 1991.
- 안재호 외,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 서경문화사, 2016.
- 이희준 옮김, 『현대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2006.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 2002.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하양 대학리·와촌 동강리 유적』, 2005.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山 新聞里 聚落 遺蹟』, 2007.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山 山陽里 遺蹟』, 2009.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신서혁신도시 B-3북구역 유적』, 20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 각산동 유적』, 2012.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내 유적Ⅱ-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2018a.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내 유적Ⅲ-경산 대학리 74번지 유적·교리 155번지 유적』, 2018b.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내 유적-경산 대학리·교리 유적』, 2019a.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산 소월리 산1-7번지 유적』, 2019b.
- 삼한문화재연구원, 『慶山 慶里 440-5番地 遺蹟』, 2012a.
- 삼한문화재연구원, 『慶山 佳野里 376-1番地 遺蹟』, 2012b.
- 삼한문화재연구원, 『대구 괴전동 125번지 유적』, 2018.
-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山 雁村里 遺蹟』, 2008.
-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山 中山洞 160-1番地 遺蹟』, 2011.
-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산 양지리 유적』, 2020
-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산 옥산동 677-7번지 유적』, 2020.
- 영남대학교박물관, 『시지의 문화 유적』 I, 1999.
- 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괴전동 유적』, 2004a.

- 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옥수동 생활유적』, 2004b.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내동 유적』, 2002.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三省里 665番地 遺蹟』, 2003.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가천동 유적』, 2004a.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 2004b.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옥수동 128번지 생활유적』, 2004c.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옥수동 134번지 유적』, 2004d.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佳野里 遺蹟』, 2005a.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麻谷里 遺蹟』, 2005b.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내 慶山 三省里 遺蹟』, 2005c.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사월동 400번지 유적』, 2006.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산 안촌리 유적』, 2007.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매호동 1008번지 유적』, 2009.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西部里 451番地 遺蹟』, 2011a.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山 玉山洞 300番地 遺蹟』, 2011b.
조선일보, [홍익희의 新유대인 이야기], 2021.03.3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산 옥산동 29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200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 玉谷洞 遺蹟』 I~IV, 200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 I~V, 2012.
한국문화재연구원, 『경산 삼성리 215-7번지 유적』, 2018.
한국문화재재단, 『2014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Ⅷ』 대구·경북1, 2016.
한빛문화재연구원, 『慶山 內里里 遺蹟』, 2011.
- 김권구, 「청동기시대 시지지역의 마을과 무덤」, 『고대마을 시지』, 국립대구박물관, 2016.
김종일,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景觀의 考古學』 67,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5.
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에 대하여-삼국시대 산성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5, 호서고고학회, 2006.
이홍중·허의행,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4, 한국고고학회, 2010.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정상수·방세현)

이희준,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2004.

정상수·방선지,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으로 본 인구의 변화」,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조선일보, [홍익회의 新유대인 이야기], 2021.03.30.

A Study on a visibility analysis and the living expenses
of the Bronze Age's Community Sites in
Gyeongsan(慶山) Area

Jung, Sang-soo
Bang, Se-hyeon

Ratiocinated the one's scope of action of livelihood action of the bronze age's community sites in *Gyeongsan*(慶山) area by 1920's topographical map that the peoples earn for daily necessities which is water, food, salt, fuel(firewood) and so on. Make a study on the outmost limited of a macroscopic from community sites and accessible living range which the peoples obtain a daily necessities from residence at the bronze age in *Gyeongsan* area. In consequence two great community site was formed out of north(the north west area) and south(the middle west area) of *Geumhogang*(琴湖江) river and the great community had a some small community by the streams in the great community. One of the small community was make up concentrative a dolmen. This result were in the place where two great community could monitor each other. The dolmens was the landmark of the great community and the milestone of a turn in the land route. And waterways which is *Geumhogang* river, *Namcheon*(南川) river and *Cheongtongcher*(淸通川) river are presumed to be an important route for material exchange. It is presumed that there was observation, surveillanc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visible community sites at bronze age.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정상수·방세현)

keywords :

a visibility analysis, the living expenses, *Gyeongsan*(慶山) area, community site, *Geumhogang*(琴湖江)·*Namcheon*(南川)·*Cheongtongchen*(淸通川) river

